

04/02 스터디 노트

📅 날짜	@2025년 4월 2일
🏷 태그	

1.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

CPU 스케줄러

CPU 스케줄링 알고리즘

1-1. 비선점형 방식

1-1-1. FCFS

1-1-2. SJF

1-1-3. 우선순위

1-2. 선점형 방식

1-2-1. 라운드 로빈

1-2-2. SRF

1-2-3. 다단계 큐

1.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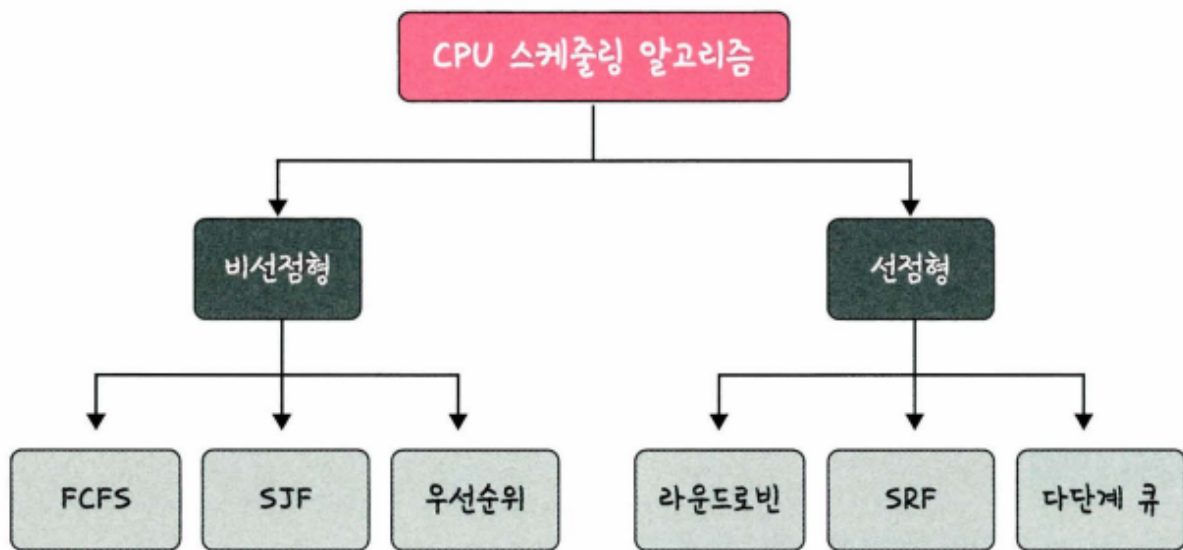
CPU 스케줄러

운영체제에서 CPU를 여러 프로세스에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구성 요소

-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세스에서 해야 하는 일을 스레드 단위로 CPU에 할당
-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수 없음
 -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선택
 - 공정성과 성능을 고려하여 CPU 자원을 분배

CPU 스케줄링 알고리즘

▼ 그림 3-33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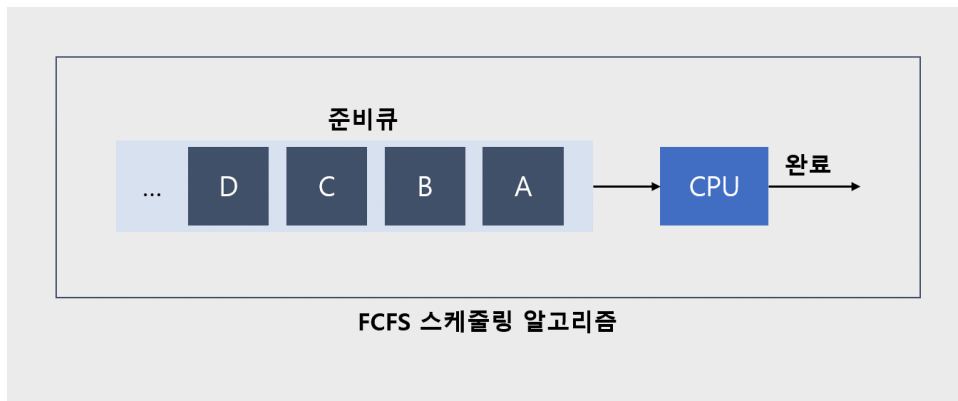
어떤 프로그램에 CPU 소유권을 줄 것인지 결정

- 목표 설정
 - CPU 이용률은 높게
 - 주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하게
 -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는 적게
 - 응답 시간은 짧게

1-1. 비선점형 방식

- 프로세스가 스스로 CPU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식
- 강제로 프로세스를 중지하지 않음
 -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 받으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소유권이 빼앗기지 않음
 -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한 부하가 적다.

1-1-1. FCFS



First Come, First Served

1. 개념

- 가장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알고리즘
- FIFO 방식과 유사

2. 장점

- 공정성
 - 먼저 온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므로 단순하고 공정함.
- 대기 큐를 사용하여 구현이 간단하고, 관리하기 쉬움
- 오버헤드 없음
 - Context Switching이 적음

3. 단점

- convoy effect 발생 (준비 큐에서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)
 - 앞에서 길게 수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뒤에 있는 짧은 프로세스들이 대기해야 함
 - 비효율적
- 긴 평균 대기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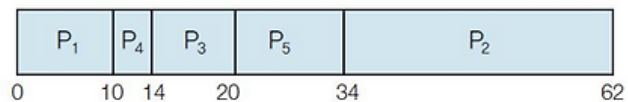
4. 예시

프로세스	도착 시간	실행 시간
P1	0	5
P2	1	3
P3	2	2

- 실행 순서: **P1 → P2 → P3**
 - P1: 0 time에 도착 → 5 time 동안 점유
 - P2: 1 time에 도착 → P1이 끝날 때까지 기다림 (5 - 1) → 3 time 동안 점유
 - P3: 2 time에 도착 → P1, P2가 끝날 때까지 기다림 (5 - 1 + 3 - 1) → 2 time 동안 점유
- 평균 대기 시간: $[(0) + (5 - 1) + (8 - 2)] / 3 = 3.33초$

1-1-2. SJF

프로세스	도착 시간	실행 시간
P ₁	0	10
P ₂	1	28
P ₃	2	6
P ₄	3	4
P ₅	4	14



Shortest Job First

1. 개념

-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실행하는 알고리즘

2. 장점

- 평균 대기 시간이 최소화됨
 - 짧은 프로세스를 우선 실행하여 전체적인 응답 속도가 향상됨
- 처리량 증가
 -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므로 많은 프로세스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음

3. 단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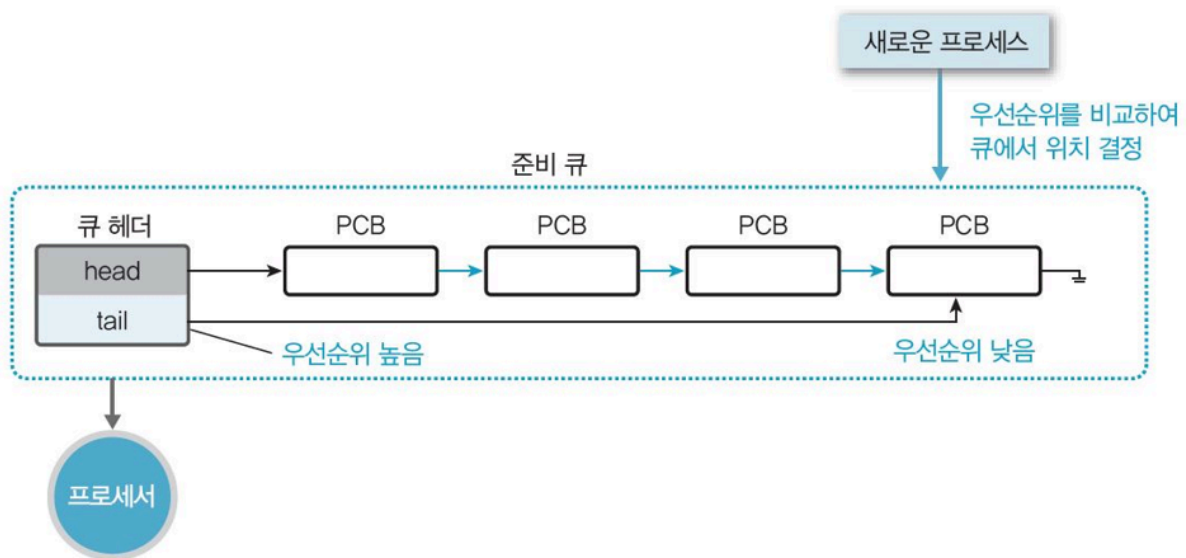
- 기아 현상(Starvation) 발생
 -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밀릴 수 있음 → 영원히 실행 X
- 정확한 실행 시간 예측이 어려움
 -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미리 알아야 하는데,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4. 예시

프로세스	도착 시간	실행 시간
P1	0	6
P2	2	8
P3	4	7
P4	6	3

- 실행 순서: **P1 → P4 → P3 → P2** (실행 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실행)
- 평균 대기 시간 계산 후 최적의 값 도출 가능

1-1-3. 우선순위



1. 개념

- 각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,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

2. 장점

- 긴급한 프로세스를 빠르게 실행 가능
 - 중요한 작업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음 ex. 실시간 시스템
- 우선 순위를 이용한 유연한 스케줄링 가능
 - 시스템 자원 관리에 효과적

3. 단점

- 기아 현상 발생 가능
 -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스가 계속 밀려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

- 그래서 aging 기법을 사용해서 보완함. → 오래된 작업일수록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
-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움
 -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스케줄링이 됨
- 비효율적 자원 사용 가능성
 -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가 적을 경우 CPU가 유휴 상태(Idle)가 될 수 있음

4.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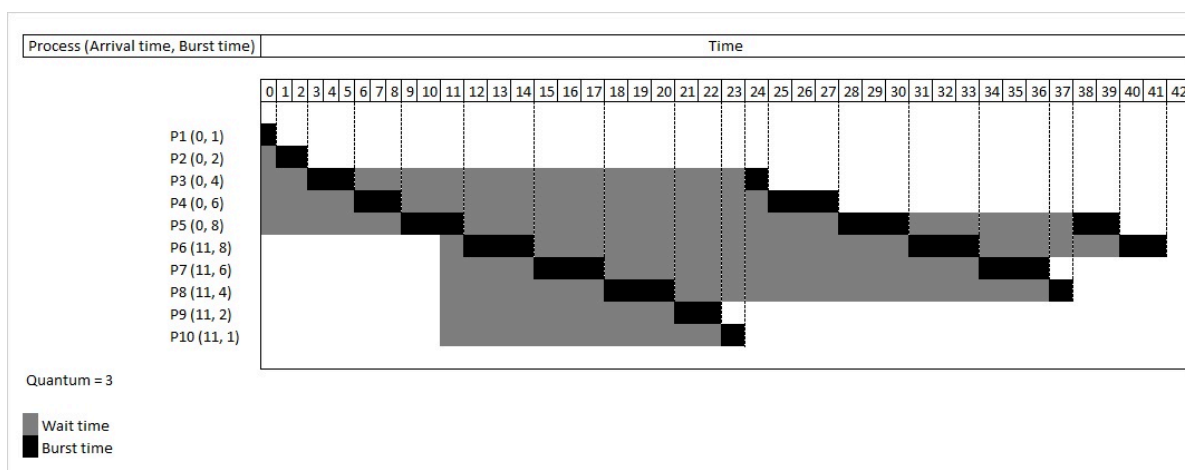
프로세스	도착 시간	실행 시간	우선순위(낮을수록 높음)
P1	0	5	3
P2	1	3	1
P3	2	4	4
P4	3	2	2

- 실행 순서: **P2 → P4 → P1 → P3** (우선순위 순으로 실행)

1-2. 선점형 방식

- 운영체제가 CPU를 강제로 회수하여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방식
- **응답성과 시스템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** 현대 운영체제에서 널리 사용됨
- 대표적인 예: 라운드 로빈(RR), 최단 남은 시간 우선(SRTF), 다단계 큐(Multilevel Queue)

1-2-1. 라운드 로빈



1. 개념

- 모든 프로세스에 동일한 시간 조각(Time Quantum, Time Slice)을 부여
- 해당 시간 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CPU를 반환하고 준비 큐의 뒤로 이동
- 각 프로세스는 순환적으로 CPU를 할당받음 (선점형 FCFS와 유사)

2. 장점

- 응답 시간이 짧아져 대화형 시스템(Interactive System)에 적합
- **공정성 보장**: 모든 프로세스가 동일한 기회를 받음
- CPU 점유가 짧은 작업은 빠르게 완료 가능

3. 단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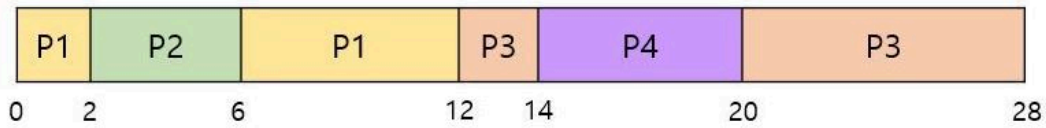
- 타임 쿼텀 설정이 민감
 - 너무 크면 FCFS가 되고,
 - 너무 작으면 문맥 교환(Context Switching) 오버헤드가 커짐
 - 대기 시간이 누적되기 쉬움 → 많은 프로세스가 있을 때 효율이 저하됨

4. 예시

- 프로세스: P1(도착:0, 실행:5), P2(도착:1, 실행:3), P3(도착:2, 실행:4)
- 타임 쿼텀: 2
- 실행 순서: P1(2) → P2(2) → P3(2) → P1(3) → P2(1) → P3(2)
- 평균 대기 시간 감소, 짧은 작업(P2)은 비교적 빨리 끝남

1-2-2. SRF

✓ SRT Scheduling



Process	Arrival Time	Burst Time	Waiting Time	Turnaround Time
P1	0	8	0+4	12
P2	2	4	0	4
P3	10	10	2+6	18
P4	14	6	0	6

- Average Waiting Time : $(4+0+8+0)/4 = 3$
- Average Turnaround Time : $(12+4+18+6)/4 = 10$

1. 개념

- **SJF의 선점형 버전**으로, 가장 남은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
- 실행 중 더 짧은 작업이 도착하면 현재 작업을 중지하고 새로운 작업을 수행
- 항상 **최소 남은 시간**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선택

2. 장점

- 평균 대기 시간과 평균 응답 시간이 모든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 가장 낮음
- 짧은 작업에 대해 매우 유리, 전체 처리 속도가 향상됨

3. 단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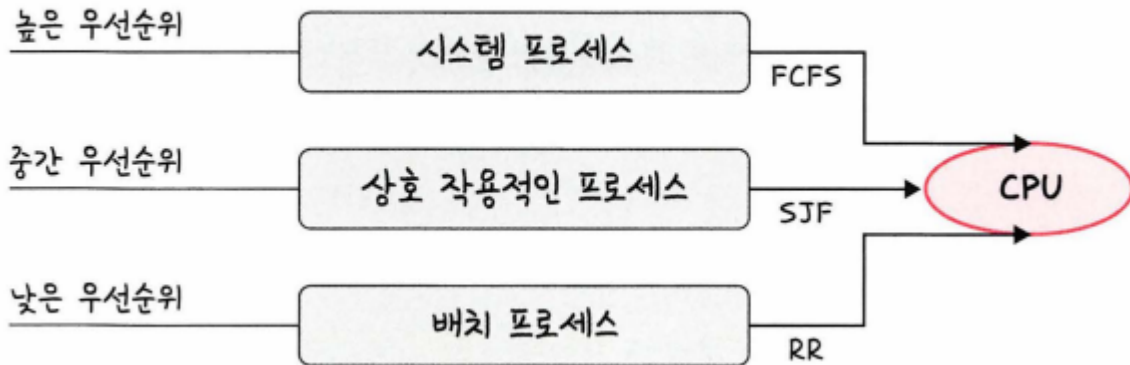
- 실행 시간 예측이 필요
-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작업의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
 - 기아 현상 발생 가능
- 긴 작업이 계속해서 짧은 작업에 밀려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

4. 예시

- 프로세스: P1(도착:0, 실행:8), P2(도착:1, 실행:4), P3(도착:2, 실행:2), P4(도착:3, 실행:1)
- 실행 순서: P1(1) → P2(0~1) → P3(0~2) → P4(0~1) → P3(1~2) → P2(나머지) → P1(남은 시간)
- 도중에 더 짧은 작업이 들어오면 선점 발생

1-2-3. 다단계 큐

▼ 그림 3-34 다단계 큐



1. 개념

- 프로세스를 **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큐로 분류**하고 각 큐에 다른 스케줄링 정책 적용
- 예: 시스템 프로세스, 사용자 프로세스, 대화형/일괄 작업 프로세스 등으로 분리
- 큐 간에는 **우선순위 기반**으로 스케줄링됨 (상위 큐가 먼저 실행됨)

2. 장점

-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
- 각 큐에서 최적의 스케줄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함
- 큐 간 이동이 없다면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적음

3. 단점

- 프로세스가 큐를 잘못 배정 받으면 성능 저하가 일어남
- 기아 현상: 하위 큐의 작업이 상위 큐에 밀려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
- 큐 간 이동이 불가능하면 적응성(유연성) 부족

4. 예시

- 큐 1: 실시간 작업 (라운드 로빈, 타임 퀀텀 5ms)
 - 큐 2: 대화형 사용자 작업 (라운드 로빈, 타임 퀀텀 10ms)
 - 큐 3: 백그라운드 배치 작업 (FCFS)
- 실시간 작업이 모두 끝나야 그 다음 큐의 작업이 실행됨